

2019년도

경주지역 제조업체 설 휴무 조사 보고서

2019년 경주지역 제조업체 설 휴무 및 상여금 지급 조사

조사 개요

- **조사 내용** : 경주지역 제조업체 설 휴무 조사
- **조사 기간** : 2019년 1월 15일(화) ~ 1월 19일(금)
- **조사 대상** :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80개사 표본조사
- **조사 방법** : 설문 조사표 및 전화 조사
- **조사 항목**
 - 가. 설 휴무기간
 - 나. 설 상여금 지급형태
 - 다. 설 상여금 지급계획
 - 라. 설 상여금 미지급 사유
 - 마. 작년대비 설 체감경기
 - 바. 2019년 상반기 경영애로 요인

2019년 설 휴무일 및 상여금 지급 조사

□ 경주지역 기업체 설 휴무일 및 상여금 지급 조사 결과,

➤ 전체 응답업체 중 과반수가 넘는 **58.8%** 업체가 토·일을 포함한

『5일간 휴무』 실시... 설 상여금의 경우 『**65.0%**』가 지급 예정

□ 주 52시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심각한 수준

I | 현 황

- 경주상공회의소(회장 최순호)는 지역 기업체 8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휴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, 설 휴무기간은 전체 응답업체 중 과반수가 넘는 58.8%(47개사) 업체가 5일간 휴무를 실시하며, 설 상여금의 경우 65.0%(52개사)의 업체가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설 연휴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간(5일) 휴무를 하는 업체가 58.8%(47개사)가 가장 많았으며, 2월 2일부터 2월 7일(6일)이 20.0%(16개사), 2월 3일부터 2월 7일(4일) 12.5%(10개사) 순으로 응답하였다.
- 설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는 5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업체가 65.0%(52개사), 미지급은 31.3%(25개사), 미정은 3.7%(3개사)로 응답하였으며, 기본급 대비 50%를 지급하는 업체가 32.7%(17개사)로 가장 많았다. 고정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80.8%(42개사), 사업주 재량으로 특별상여금 지급이 19.2%(10개사)로 조사되었다.

- 또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5개사 중 미지급 사유로는 취업규칙상 설 연휴비가 없음은 52.0%(13개사), 전년도에는 지급했으나 경영악화로 미지급은 24.0%(6개사), 상여금 외 기타 편의 제공 16.0%(4) 순으로 응답하였다.
- 지역 기업체가 느끼는 올해 설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 55%(44개사), 매우 악화 25%(20개사), 작년과 비슷한 수준 20%(16개사) 응답하였으며, 2019년 1/4분기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최저임금 등 고용 노동환경 변화(39.5%), 내수 침체 장기화(31.9%), 순으로 나타났으며, 대외 위험요인으로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(31.3%),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(24.1%),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(21.7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특히, 국내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경주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부품사와 중공업협력업체 경우,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지역 기업들이 올해 설 명절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<끝>

가.

설 휴무 기간

(단위 : 개사)

휴무 기간	2/2 ~ 2/6 (5일간)	2/2 ~ 2/7 (6일간)	2/3 ~ 2/6 (4일간)	2/2 ~ 2/10 (9일간)	미정	계
응답업체 수	47	16	10	2	5	80
비율	58.8%	20.0%	12.5%	2.5%	6.2%	100%

나.

상여금 지급 여부

(단위 : 개사)

항 목	응답업체 수	비율
① 지급	52	65.0%
② 미지급.	25	31.3%
③ 미정	3	3.7%
계	80	100%

나-1

상여금 지급 형태

(단위 : 개사)

항 목	응답업체 수	비율
① 고정상여금 지급(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상)	42	80.8%
② 사업주 재량으로 인한 특별상여금 지급	10	19.2%
③ 기타	0	0%
계	52	100%

나-2

상여금 평균 지급 계획

(단위 : 개사)

항 목	응답업체 수	비율
① 기본급 대비 50%	17	32.7%
② 정액으로 지급	10	19.2%
③ 기본급 대비 100% 이상	7	13.5%
④ 기본급 대비 30%	5	9.6%
⑤ 기타	13	25.0%
계	52	100%

나-3

상여금 미지급 사유

(단위 : 개사)

항 목	응답업체 수	비율
① 취업 규칙상 설 연휴비 없음	13	52.0%
② 전년도에는 지급했으나 경영악화로 미지급	6	24.0%
③ 상여금 외 기타 편의 제공	4	16.0%
④ 기타	2	8.0%
계	25	100%

다.

귀사에서 체감하는 올해 설 경기

(단위 : 개사)

항 목	응답업체 수	비율
① 악 화	44	55.0%
② 매우악화	20	25.0%
③ 비슷한 수준	16	20.0%
④ 호 전	0	0%
⑤ 매우 호전	0	0%
계	80	100%

아

2019년 1/4분기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요인

대내 위험요인

(단위 : 개사)

항 목	응답업체 수	비율
①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	47	39.5%
② 내수 침체 장기화	38	31.9%
③ 기존금리 인상 가능성	23	19.3%
④ 관련 규제법안	9	7.6%
⑤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	2	1.7%
⑥ 기 타	-	-
계	119	100%

□ 대외 위험요인

(단위 : 개사)

항 목	응답업체 수	비율
① 통상분쟁 등 모호무역주의	26	31.3%
②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	20	24.1%
③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	18	21.7%
④ 고유가 현상 지속	13	15.7%
⑥ 기 타	6	7.2%
계	83	100%

〈끝〉

이 자료는 2019년 1월 22일 夕刊부터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	담당부서	기업관리팀
		연락처	054)741-6603
본 보도자료는 경주상공회의소 인터넷(http://gyeongjucci.korcham.net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			

2019년도 경주지역 제조업체 설 휴무 현황 조사

□ 경주지역 기업체 설 휴무일 및 상여금 지급 조사 결과,

▶ 전체 응답업체 중 **58.8%**가 토·일을 포함한 2/2(토) ~ 2/6(수)까지

『5일간 휴무』 실시... 설 상여금의 경우 『**65.0%**』가 지급할 계획

- 경주상공회의소(회장 최순호)는 지역 기업체 8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휴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, 설 휴무기간은 전체 응답업체 중 과반수가 넘는 58.8%(47개사) 업체가 5일간 휴무를 실시하며, 설 상여금의 경우 65.0%(52개사)의 업체가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설 연휴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간(5일) 휴무를 하는 업체가 58.8%(47개사)가 가장 많았으며, 설 상여금 지급의 경우 지급한다는 업체가 65.0%(52개사) 응답하였으며,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 중 고정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80.8%(42개사)로 조사되었다.
-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5개사의 미지급 사유로는 취업 규칙상 설 연휴비가 없음은 52.0%(13개사), 전년도에는 지급했으나 경영악화로 미지급은 24.0%(6개사), 상여금 외 기타 편의 제공 16.0%(4) 순으로 응답하였다.
- 지역 기업체가 느끼는 올해 설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 55%(44개사), 매우 악화 25%(20개사), 작년과 비슷한 수준 20%(16개사) 응답하여 국내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경주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부품사와 중공업협력업체의 경우,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지역 기업들이 올해 설 명절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<끝>